광주시·전남도 국비 확보 총력전

새누리와 순천서 정책협,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정부 예산안 확정 앞두고 현안사업비 확보 노력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접촉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해 국비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어려운 신규사업과 관련 여·야 정치권을 통해 정부의 높아진 문턱을 넘을 방침이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확정한 예산안이 다음달 11일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내년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시와 도는 31일 오전 순천에 있는 전남도동부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과 내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재경 예산결산위원장, 주영순 정책위부의장 등 예산 관련 실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적이 새정치민주연합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선 당적이나 여·야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월요 간부회의 등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예산 관련 주요 간부진들과 함께 대거 순천행에 나선다.

윤 시장과 이 지사가 평소 간부진과의 대규모 동행을 비효율적인 과도한 의전으로 인식하고, 주요 행사에도 '나 홀로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순천 방문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윤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광·전자융합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100억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38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28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864억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676억원) 등 총 10건 2932억원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현안으로 ▲광주교도소 무상양여(법무부) ▲산업시설(공장) 용지 수요면적 확대(국토교통부) ▲무등산 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3건도 전달할 방침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2000억원) ▲남해안철도(목포~보성)건설(3000억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250억원)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120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구축(200억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80억원) ▲여수~남해 간 동서해저터널 건설(100억원)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25억원) ▲암태~추포~비금간 연도교 건설(100억원)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123억원) 등 국회에서 추가 예산 반영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지역 현안사업을 요청하기로 했다.

윤 시장과 이 지사는 또 다음달 1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1명과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도 개최한다. 윤 시장은 3일에도 광주시청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지원사업과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꼭 반영돼야 할 내년도 국비 사업

□ 광주시 (단위: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864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676
광·전자 융합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100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	38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28

□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구축	200
암태~추포~비금간 연도교 건설	100
여수~남해간 도로 (동서해저터널) 건설	100
세월호 침몰사고 추모시설 조성	40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	25

박대통령 지지율 49% … 올들어 최고치

갤럽 조사, 남북협상 영향

지난주보다 15%P 상승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수직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9%, 부정 평가가 44%로 집계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긍정 평가 응답률은 지난주 조사보다 15%포인트 상승,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응답률은 12%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응답률이 부정 응답률을 앞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30%대에서 답보하던 국정지지도가 급등한 배경은 지난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가 성공적으로 평가받게 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긍정 평가 응답자 가운데 38%는 그 이유로 '대북·안보' 정책을 꼽았다.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해 기대감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지지를 유보했던 여권 지지층이 재차 결집했고, 20~30대의 안보의식이 강화됐다는 점도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심은 지지율 상승의 지속 여부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내치(內治)보다는 상대적으로 외치(外治)에서 호평을 받았고, 지지율도 각종 정상외교 이후에는 일정하게 상승세를 타는 패턴을 보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9월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10월 한미정상회담, 하반기에 집중된 각종 다자외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의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난다면 지지율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동개혁 위해 임금피크제 필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62·청주상당) 의원은 지난 28일 광주를 찾아 금호타이어 노사 분규와 관련해 언급하고 "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배경이 됐던 제도로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인만큼 박근혜 정부도 반드시 해야할 숙제와도 같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호타이어 노사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日 시위대 "평화헌법 파괴 말라"

30일 일본 도쿄의 의회의사당 앞에서 경찰이 자위대 역할 확대를 위한 안보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자들을 막아서고 있다. 시위대가 들고 있는 종이판에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파괴하지 말라'는 글귀가 여럿 보인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자문위,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제명' 결정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로 넘겨 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자문위가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결정한 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지난 2011년 4월 제명 결정을 내린 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새정치 광주시당, 5·18왜곡 기념재단과 공동 대응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근절되지 않는 5·18 왜곡 등 현안에 대해 5·18 기념재단 등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혜자 위원장, 박근용 사무처장, 설정환 정책실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당직자와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와 이기봉 사무처장, 5·18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등은 지난 29일 오후 시당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만원씨의 5·18 폄하 발언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5·18 기념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마련 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날 모임에서는 5·18 폄훼 방지는 물론 참된 정신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금피크제 불참 지방공기업 성과급 못받을 수도

행자부 "도입 안하면 벌점"

한수원·공무원연금공단 도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 직원은 성과급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는 평가 때 강력한 벌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에는 평가 때 최대 2점을 감점하고, 조기 도입하는 곳에는 가산점 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는 임직원의 성과급에 연동돼 있다. 최하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의 직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최고경영자 등 임원은 연봉이 깎인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8일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합의안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한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도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노동조합은 조합원 89.9% 찬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의원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펨토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無출혈 / 無통증 / 無봉합 / 無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의원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